

다니엘서 - 번호 26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 이교주의, 교황주의, 그리고 미국의 베일을 벗기는
예언적 태피스트리

Jeff Pippenger
2023-12-21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상징은 놀랍다. 그의 '일곱 때'는 이교주의(상번제)와 교황주의(황폐케 하는 죄과)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던 여러 시기를 예표했다.

그때에 내가 한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거룩한 자에게 묻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이 환상, 곧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짓밟히게 하는 일이 얼마 동안이겠느냐?" 다니엘 8:13.

13절에 언급된 "성소와 군대 모두"의 짓밟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진노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일곱 때"를 나타낸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는 하나님의 진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일곱 때"를 나타내지만, 둘 다 예언적으로는 동일한 선상에서 표현된다.

내가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의 측량줄과 아합의 집의 다림줄을 펼치고, 사람이 그릇을 닦되 닦고 나서 그것을 거꾸로 뒤집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아 버리겠다. 열왕기하 21:13.

다니엘 8장 13절은 기원전 677년에 시작되어 유다 남왕국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국면을 다룬다.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는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어 이스라엘 북왕국에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의 국면을 나타낸다.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는 이교가 1,260년 동안 성소와 군대를 짓밟은 기간을 가리키며, 그 뒤이어 교황권이 또다시 1,260년 동안 성소와 군대를 짓밟은 기간을 가리킨다.

교황주의는 단지 기독교의 신앙고백으로 덮은 이교일 뿐이다. 말하자면 '세례받은 이교'다. 가톨릭에는 그리스도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암흑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배웠지만, 1798년 이후로 세상은 그것을 잊었다. 교황권은 이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종교와 예식은 동일하다.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진 '일곱 때'의 심판은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에게 주어진 그 짐승의 마음은, 노골적인 이교이든 가톨릭의 형태를 한 위장된 이교이든, 이교를 상징하는 마음이었다.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이 사탄이라고 밝히지만, 이차적 의미에서는 그것이 이교 로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용은 일차적으로는 사탄을 대표하지만, 이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대쟁투, 439쪽.

느부갓네살이 '일곱 때' 동안 대표했던 그 짐승은 1,260일 동안은 용의 짐승이었고, 그다음 또 다른 1,260일 동안은 가톨릭의 짐승이었다. 그 날들이 끝날 때 느부갓네살은 미국을 상징하는데, 미국은 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이다. 예언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영적 바벨론을 구성하며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삼중 권세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대표했다. 느부갓네살은 문자적 바벨론을 대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의 영적

바벨론을 구성하는 세 권세 모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방금 식별한 상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곱 때'의 끝에 그의 나라가 회복되는 1798년에 느부갓네살을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서 4장에서 이 이정표를 확립할 것이다.

1798년, '종말의 때'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고, 그 책은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며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형성하는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다. 다니엘서의 봉인 해제는 그때 계시된 진리들에 기초한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의 시작을 알린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마지막 때까지 닫히고 봉함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으려니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들 가운데에는 깨닫는 자가 없으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된 그 책의 봉인이 풀리는 일의 예언적 목적은, 그 책의 봉인이 풀리는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세대를 시험하는 데 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세 가지 시간 예언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는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흠어지는 1,260년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봉하여 끝날 때까지 두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강가 이쪽 둔덕에, 다른 하나는 강가 저쪽 둔덕에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요, 또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마치리라." 다니엘 12:4-7.

12장에 나오는 다른 두 예언적 기간은 1,290일과 1,335일이다.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기로 내가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찌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마지막 때까지 봉해져 인봉되었느니라.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으려니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니엘 12:8-12.

그 구절들에서는 '마지막 때'가 두 번 언급되며, 다니엘의 말씀이 봉함이 풀릴 때로 정의된다. '마지막 때'에 봉함이 풀릴 것으로 언급된 것은 세 가지 예언적 기간, 곧 천이백육십(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천이백구십, 천삼백삼십오이다. 이 세 기간 가운데 둘은 '날'로 규정되어 있다. 세 기간 중 둘은 1798년에 끝났고, 셋째는 1843년의 아주 마지막에 끝났다. 그것이 1843년의 바로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구절이 '기다리며, ...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cometh,"라는 단어는 '닿는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다리며 또한 1844년 첫날에 닿는 자는 복이 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지체 기간은 밀러파 역사에서 첫 번째 실망 때 시작되었는데, 그 실망은 1843년의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났다. 그리고 1843년의 바로 마지막 날은 1844년의 바로 첫날과 맞닿아 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복은 첫 번째 실망으로 지체 기간이 시작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구절들에는 다룰 내용이 훨씬 더 많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핵심은 다니엘의 예언적 역할이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대표하는 다니엘서의 목적은, 책의 봉인이 풀릴 때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니엘은 책의 봉인이 풀릴 종말의 때까지 자기 길을 가라고 지시받았다. 이 장의 결론은 종말의 때가 도래하면 무엇이 일어날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너는 끝날 때까지 네 길을 가라. 네가 쉬리니, 끝날에는 네 분깃에 서리라.
다니엘 12:13.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예언의 날들의 끝에 제 자리에 서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그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분깃과 처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6권, 108.

1798년 종말의 때에 다니엘은 자기 분깃에 섰는데, 이는 13절에서 "날들의 끝에"라고 표현되어 있다.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 추방의 끝은 1798년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날들의 끝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날들의 끝에 이르러,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내 깨달음이 내게 돌아왔으며,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거민 가운데에서 그의 뜻대로 행하나니, 그의 손을 막을 자도 없고 그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말할 자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존귀와 광채가 내게 돌아왔으며, 나의 모사들과 귀인들이 나를 찾았고, 내가 내 나라에 견고히 서게 되었고,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높이며 공경하노라. 그의 모든 일은 진실하고 그의 길은 공의로우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실 수 있느니라. 다니엘서 4:34-37.

'끝날'이라는 표현은 1798년의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의 왕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고, 그 왕국은 더 이상 이교와 교황주의의 짐승들이 지배하던 역사가 아니었다. 그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회심한 사람을 상징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1798년에 통치를 시작한 성경 예언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표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용처럼 말하게 될 운명이었다. 그는 그의 문자적 왕국이 70년 동안 문자적으로 통치했던 것처럼, 이사야 23장의 성취로서 상징적 70년 동안 통치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표한다. 그 상징은 물 썰 틈 없다.

느부갓네살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제시된 세 세력 사이의 예언적 연결고리를 대표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지칭된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그들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세력으로 규정된다.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는 그 세 짐승을 모두 하나로 묶어 주는데, 이는 문자적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을 보여 주고, 다니엘서에 있는 동일한 예언의 흐름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기 때문이며, 두 책이 서로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은 1798년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이의 예언적 연결 고리로 제시한다. 1798년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밀러파 역사에 있어 '끝의 때'였다. 윌리엄 밀러는 이교의 용과 가톨릭의 짐승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자신의 모든 예언 체계를 세우도록 인도받았지만, 미국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자 거짓 선지자로 보지는 못했다. 그는 1798년 '끝의 때' 이전의 역사는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는 여전히 미래였다. 1989년 '끝의 때'에는 그 세 세력이 모두 식별되게 될 것이다.

1798년에 용과 짐승에 대한 예언적 인식의 붕인이 풀린 것은 7, 8, 9장에 나오는 올라 강으로 표상된다. 1989년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적 인식의 붕인이 풀린 것은 10, 11, 12장에 나오는 히데겔 강으로 표상된다. 느부갓네살은 1798년에 도래한 첫째 천사의 운동을 대표하며, 그는 1989년에 도래한 셋째 천사의 운동을 대표하는 벨사살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한다.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는 1798년 "끝의 때"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도래함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날들의 끝"에 그는 회심한 사람이었고, 이로써 땅의 짐승이 어린양 같았던 때의 공화주의의 뿔을 대표한다. 그는 동시에 땅의 짐승의 빌라델비아 시대의 개신교적 뿔을 대표한다.

바벨론의 첫 왕으로서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예표한다. 그의 심판은 니므롯의 심판에 의해 예표되었고, 차례로 벨사살의 심판을 예표하였다. 그의 심판은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 심판이 개시됨을 나타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알게 하기를 내가 좋게 여겼노라. 그의 표적이 어찌 그리 크며 그의 기사가 어찌 그리 능한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평안히 있었고 내 궁전에서 형통하였더니, 나를 두렵게 하는 꿈을 보았고,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머릿속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노라. 다니엘 4:1-5.

그 꿈은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했고, 그 꿈의 상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하는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나타낸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샘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6, 7.

영원한 복음은 세 단계의 기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천사로 상징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그분의 심판의 때로 나타난다. '영광'은 품성을 뜻하며, 니므롯의 반역 이야기에서 두 번째 'go to'는 그 성과 탑의 품성을 조사한 대목이었다. 그것은 조사심판이었다.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짐승의 우상이며, 니므롯의 두 번째 단계는 그 짐승의 우상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니므롯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영화롭게 한다.

느부갓네살의 두려움은 첫 번째 시험의 상징이며, 바벨론의 식단을 따르지 않기로 한 다니엘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는 1798년에 역사 속에 등장했고, 그 후 1840년 8월 11일에 권능을 받았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첫째 기별의 도착 시점을 끝의 때인 1798년으로 특정한다.

나는 나를 두렵게 하는 꿈을 꾸었고, 침상에서 떠오른 생각들과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 주도록 하였다. 이에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술가들이 들어왔고,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은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하였고,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내가 그 앞에서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오 벨드사살아,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여,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네게는 어떤 비밀도 어려움이 되지 않음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꿈의 환상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 4:5-9.

1798년 끝의 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한 것, 곧 느부갓네살의 두려움으로 상징되는 그 사건은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게 될 시점을 가리킨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하여 끝날 때까지 보관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늘어나리라. ...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 말씀은 끝날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다.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들 가운데서는 깨닫는 자가 없겠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4, 9, 10.

“끝날”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을 때, 사람들은 와서 지식의 증가를 살펴보라는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은 결국 두 부류의 예배자를 낳았다. 한 부류는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부류는 이해했다. “마술사들, 점성가들, 갈대아인들, 그리고 점쟁이들”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이해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악한 자들을 대표한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했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4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불성실한 자들은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동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이끌 만한 성격을 갖추지 못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그들을 고용하신 분의 눈앞에 자신들이 있음을 느껴야 한다. 벨사살의 불경한 연회를 지켜보셨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관들, 상인의 회계실, 개인 작업장에도 계시며, 피 없는 손은 그 신성모독한 왕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기록했던 것처럼 당신의 태만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다. 벨사살에 대한 정죄는 불의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너는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하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당신에 대한 정죄도 같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229.